

보도일	2016. 12. 21.(수)		
배포일	2016. 12. 21.(수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02-880-5054)
담당부서	국제협력본부	문의	국제협력본부(880-5085)

성낙인 총장, 루스탐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교류협력 방안 협의

-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2016년 12월 20일(화) 루스탐 아지모프(Rustam Azimov)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접견을 갖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.
-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장관, 경제개발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10년 이상 제1부총리를 맡고 있는 아지모프 부총리는 “우즈베키스탄은 금, 석탄, 우라늄,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나, 산업적으로 활용할 인력과 기술이 부족하여 우수한 엔지니어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이를 위해 서울대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희망한다” 고 말했다.
- 이어 아지모프 부총리는 “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우수 대학의 분교 유치를 통해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” 며 “상호 이익에 기반한 다양한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와의 협력과 검토를 부탁한다” 고 하였다.
- 이에 대해 성낙인 총장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과의 공학 및 의료분야에서의 인력 파견, 교육사업 지원, 병원 운영 등 서울대의 교류 협력 사례 등을 강조하면서 “서울대는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대표 대학으로 글로벌 지역간 균형 발전과 협력

을 통한 상생 발전에 책임과 의무를 안고 있으며, 우즈베키스탄과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 고 답했다.

□ 이날 접견에는 이진우 서울대 공과대학장, 이 근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장, 구민교 국제협력부분부장이 동석하였고, 코자에프 우즈베키스탄 신임 재무부장관과 아사도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도 함께 참석하였다.